

민주당 결국 분열... '원칙과 상식' 비명계 3인방 탈당

이원욱·김종민·조용천 의원... 운영찬 의원은 잔류 선언
'텃밭' 호남 신당 반대 여론 불구 이낙연 오늘 탈당 예정
광주·전남 국회의원·지방의원들 신당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석 달여 남겨놓고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인해 추가 탈당 등 원심력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이자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용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행동했던 4인방 중 한 명인 운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증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탈당한 뒤에는 제3세력과 연합해 재기를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잇따른 현역 의원들의 탈당 행렬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추가 탈당 등 원심력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장 추가 탈당하는 현역 의원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어 낙관할 처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 창당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신당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당 정체성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셜네트워킹(SNS) 등에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간데 이어, 11일 시·도당 국회의원·지방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창당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 등이 신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이 서둘러 신당을 창당해 세력을 키우고 제3지대 연대가 가시화된다면 향후 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변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신당이 중도표심에 미칠 영향력, 선거제 개편 논의에 따라 제3지대 세력이 비례 신당 또는 선거연합 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을 막고 신당의 당치 키우기를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향후 진행되는 공천을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퇴원... '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을 외치는 정치 복원 이정표 되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중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 데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8일만에 퇴원... "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

"타협하는 정치 복원 이정표 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중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 데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과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퇴원 현장에는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몰렸다. 당 최고위원들과 조영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퇴원 현장에 동행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당무 복구 시점과 관련, 기자들에게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및 '원칙과 상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직접적 말씀은 없었다"면서도 "나와서 말한 내용에 보면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했으니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조태용,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징계 안 받아"

이인영 의원 "면허정지 처분 받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경찰청·외교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월 23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당시 외교부 북미1과장이던 조 후보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을 통해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미국 정유사 엑손모빌의 자회사로부터 주택 임대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경찰 "이재명 습격범, 정치신념 경도돼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중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인 김모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신 매체가 보도를 통해 이미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공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다. 특히 범행 당시 김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